

EWHA

2025학년도 학생부위주전형 안내서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이화, FIRST & BEST

최고의 여성 인재 배출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배출(2019-2022)

여성 교수 배출 및 이공계 여성 교수 비율
학회 및 공직 분야 최초의 여성 임원 배출



국가고객만족도(NCSI) 국내 사립대 부문(2023)

입학 전 기대 대비 만족도 | 고객충성도 | 고객유지율
학교에 대한 만족도 | 입학 후 느낀 만족도

입증된 이화의 경쟁력

251명

교사임용시험 합격자 수(수석 및 차석 포함)
(2024학년도)

수석합격

국가공무원 5급 교육행정직
(2020, 2022)

수석합격

국가공무원 5급 일반행정직
(2022)

수석합격

국가공무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2023)

48명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
(2023)

1,620명

이화 출신 법조인
(2022)

1,133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2024)

1위

검사 임용 10명, 재판연구원 임용 14명
(전국 로스쿨, 2024)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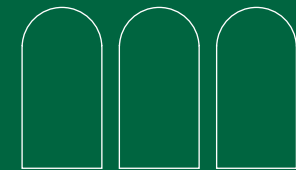
법관 임용 누적 인원
(전국 로스쿨, 2023)

18명

변리사 시험 합격자 수
(2023)

새롭게 도약하는 이화

대학분야별 평가(국내대학 기준)



QS Ranking (2024)

국내 4위 영어영문학

국내 6위 예술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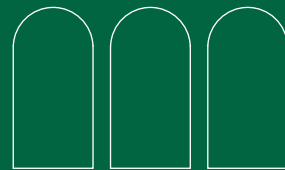
국내 7위 예술과 인문학

4년 연속 남녀평등 부문
Times Higher Education(THE)
World University Ranking
(2020~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2023)

종합 7위



국내 4위 교육학

국내 5위 간호학

국내 5위 사회학

국내 5위 커뮤니케이션학

Contents

I. 전형안내

- 04 2025학년도 입학전형 일정 및 원서접수 절차
- 06 2025학년도 학생부위주전형 안내 및 주요 변경사항

II. 학생부종합전형

- 08 미래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기여자전형 안내
- 10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 1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 14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인터뷰
- 24 학생부종합전형 FAQ

III. 학생부교과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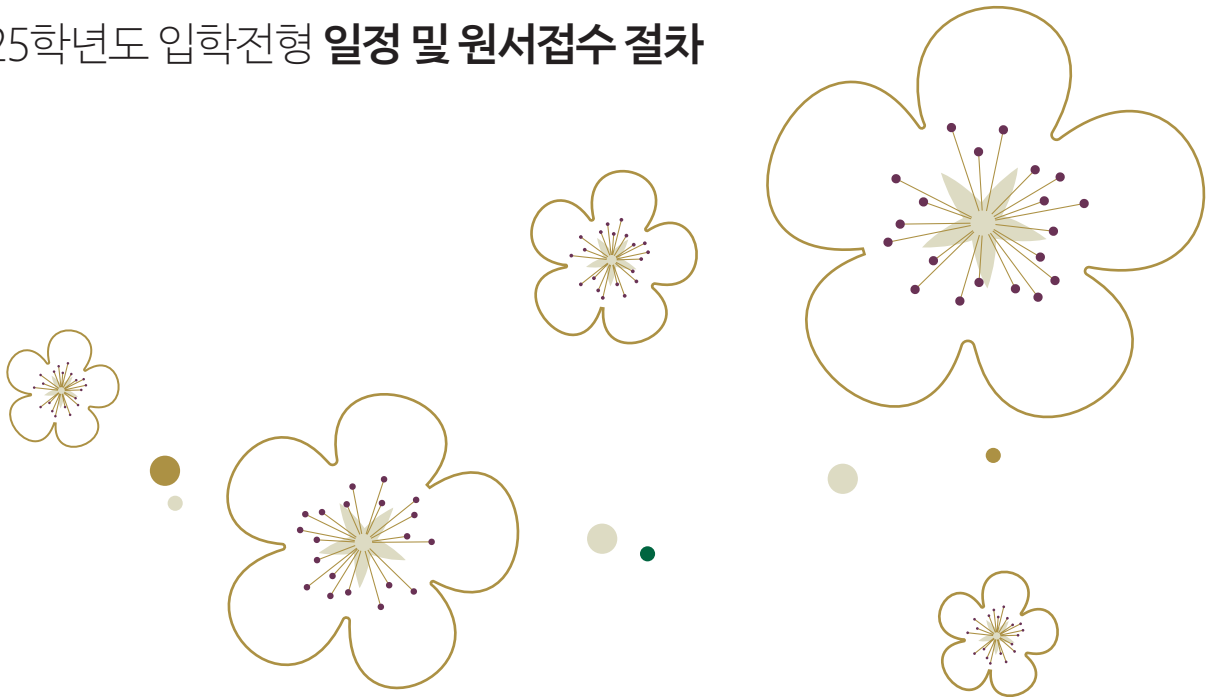
- 26 고교추천전형 안내
- 27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안내
- 28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인터뷰
- 36 학생부교과전형 FAQ

IV. 이화로운 대학생할

- 38 유연한 전공설계
- 39 대학생할 스토리
- 42 예비 벅에게 한마디

I. 전형안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일정 및 원서접수 절차



2024		Sep	Oct	Nov
		9	10	11
수시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2024. 9. 10.(화) ~ 9. 12.(목)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추천대상 명단 확인 및 추천여부 등록(교사)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합격자/장학생발표
	서류제출	2024. 9. 10.(화) ~ 9. 13.(금)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면접대상자 발표	2024. 11. 8.(금)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면접	
			2024. 10. 22.(화)	
			2024. 10. 26.(토) ~ 10. 27.(일)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2024. 11. 14.(목)

Dec
12

학생부종합
(미래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기여자전형)
합격자/장학생 발표
2024. 12. 13.(금)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4. 12. 16.(월) ~
12. 18.(수)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2024. 12. 26.(목)
18:00까지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4. 12. 27.(금)

2025

Jan
1

Feb
2

* 일정은 대교협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2024. 12. 31.(화) ~
2025. 1. 2.(목)

합격자 발표

2025. 2. 5.(수)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2025. 2. 19.(수) 18:00까지

등록기간

2025. 2. 10.(월) ~
2. 12.(수)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5. 2. 20.(목)

2025학년도 학생부위주전형 안내 및 주요 변경사항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조정

● 일부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미래인재전형/논술전형 약학전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6 이내
미래인재전형 미래산업약학전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6 이내
예체능서류전형 체육과학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9 이내

●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수학 및 탐구영역 과목 제한 폐지

수학 영역	탐구 영역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가능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제한 없음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 선발인원 확대,
실기/실적(과학특기자전형) 폐지 및 논술(논술전형) 선발인원 축소

	2024		2025
고교추천전형	400 ^명	▲ 17	417 ^명
미래인재전형	945 ^명	▲ 65	1,010 ^명
과학특기자전형(폐지)	22 ^명	▼ 22	0 ^명
논술전형	300 ^명	▼ 3	297 ^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전형방식 변경

- 진로선택과목 비중 확대

10%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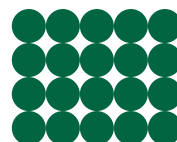
- 전형방법

일괄합산 선발

단계별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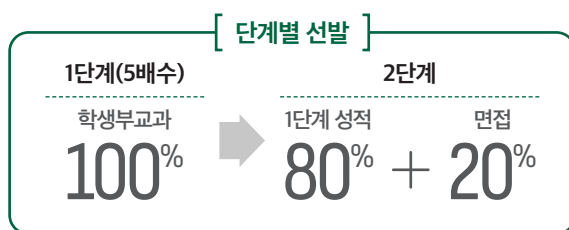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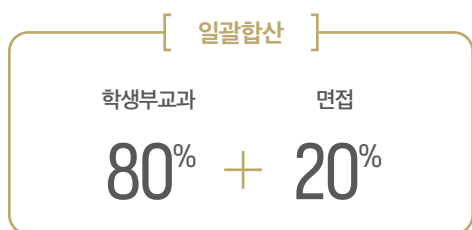
1단계(5배수)+2단계

- 고교별 추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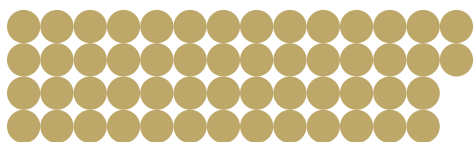


재적 여학생 수의 최대 5% 이내
10명

고교별 최대 20명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전형방법 다각화



실기/실적(국제학특기자전형) 54명



실기/실적(국제학특기자전형) 43명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 11명

학교 폭력 관련 사항 반영 방법

- 학생부교과전형(고교추천전형): 지원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반영함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됨

- 서류평가 전형(학생부종합전형, 예체능서류전형, 특기자전형): 해당 전형 서류평가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함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서류평가 총점에서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

II. 학생부종합전형

01 미래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기여자전형 안내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전형

모집인원 **1,010** 명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교과영역 및 학교 활동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계발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수학 포함)
의예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약학전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미래산업약학전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스크랜튼학부(자유전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국제학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 [탐구영역] 응시한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 등급으로 반영
- * 계열은 본교의 모집단위의 계열 구분 기준임
- * 인문계열(미래산업약학전공 포함), 국제학부는 국어영역, 자연계열(의예과, 약학전공 포함)은 수학 영역(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을 응시하여야 함
-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형방법 공통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학업역량 및 학교활동의 우수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서류평가 총점에서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

모집인원

164명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의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자 중 해당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유형 I)
 -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초·중·고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해당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유형 II)
 -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자연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수학 포함)

- * [탐구영역] 응시한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 등급으로 반영
- * 계열은 본교의 모집단위의 계열 구분 기준임
- * 인문계열은 국어 영역, 자연계열(약학전공 포함)은 수학 영역(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을 응시하여야 함
-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부종합

사회기여자 전형

모집인원

16명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를 교부받은 자) 및 그의 자녀
 - 직업군인의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 해외 파견 선교사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통산 해외 선교 근무 경력 기간이 5년 이상이며, 현재 해당 분야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본교가 인정하는 교단 및 교회의 목회 활동에 한함

※ 해외선교를 위한 통산 체류기간이 5년 이상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자연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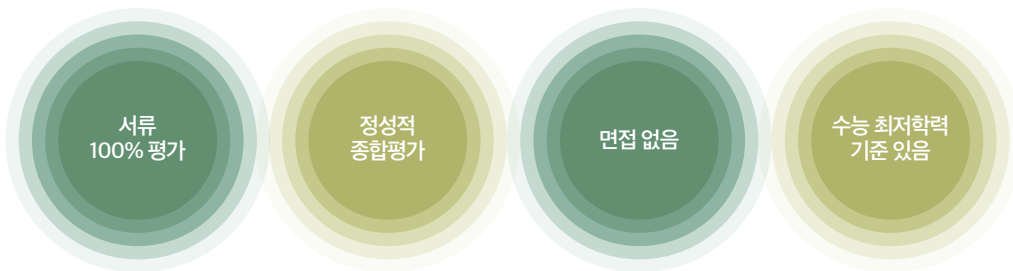
6 이내
(수학 포함)

- * [탐구영역] 응시한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 등급으로 반영
- * 계열은 본교의 모집단위의 계열 구분 기준임
- * 인문계열은 국어 영역, 자연계열은 수학 영역(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을 응시하여야 함
-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의 획일화된 수치 위주의 정량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학업능력, 전공에 대한 의지와 노력, 개인적 특성, 자기주도성과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고교 3년간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에 대한 과정 중심의 평가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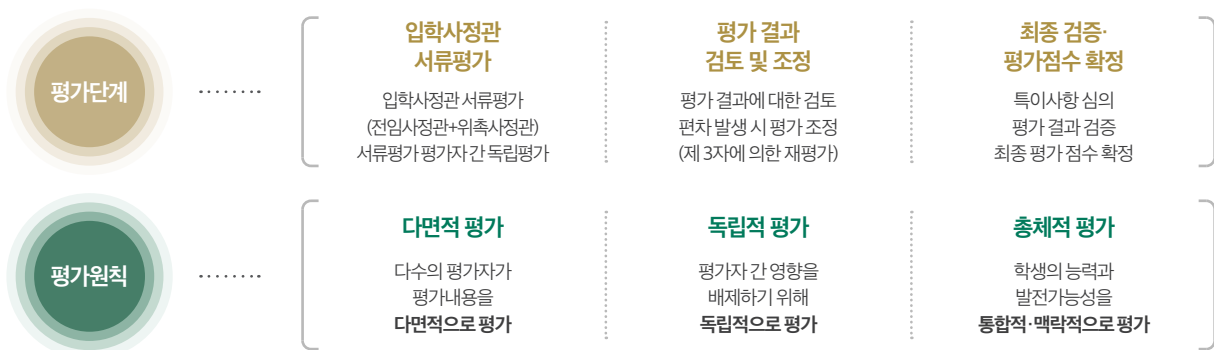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주요사항



평가단계 및 평가원칙

이화여자대학교는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를 운영하여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노력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2019.11.28.)

구분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2023학년도 대입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2024·2026학년도 대입
교과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동아리 활동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 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는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 대입 미반영(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 대입 미반영(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2021학년도 고1부터,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2024학년도 대입)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학생부 관련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졸업생 포함)

구분	평가항목	KEYWORD	주요 평가질문
학업 역량 (30%)	기초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동일 모집단위 내 타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 • 대학에서의 수학을 위한 기본 과목(국수영사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외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포함), 성취도별 분포 비율, 수강자 수의 규모 등은 적절한가? •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은 어떠한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상승/하락되고 있는가?
		교과목 이수 현황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위계에 따라 적절하게 이수하였는가? • 진로선택과목 이수 내역은 일반선택과목 이수 정도에 비해 적절한 수준인가?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이수 및 성취도	•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지원 계열과 관련하여 도전적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는가?
		고교 교육 환경	•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 소속 고교의 학업 성취 난이도는 어떠한가? • 지원자의 학적사항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가?
	심화 학업 역량	지원 계열 교과목 이수 현황	• 지원 모집단위에 따른 교과목 중 심화교과 수강이력이 있는가? • 수강한 심화교과의 선택과 수학 과정은 도전적이었는가?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성취도	• 지원 모집단위에 따른 핵심 교과목의 전반적 성취도는 어떠한가? • 심화교과의 성취도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교사의 평가의견은 어떠한가? •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이 드러나는가?
학교 활동의 우수성 (40%)	지식탐구 역량	학업 태도 및 학업의지	• 지식활동의 양에 집중하기보다 활동 하나에도 깊이를 추구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를 통해 발전을 꾀하였는가? •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관심, 지적 호기심이 표출되는가?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 도전정신이 있는가? •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 지식탐구활동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탐구능력	• 각종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 각종 탐구활동이 교과 내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가? • 교과 및 교과연계 활동 과정에서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결과물을 산출한 경험이 있는가? • 탐구 과정이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며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가?
		지원 계열 탐색 노력	•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교과/비교과 활동에서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탐색한 과정이 확인되는가?
	창의융합 역량	창의력	•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 각종 교과/비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였는가? •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였는가?
		문제해결 능력	• 교내 활동의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비판적, 체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는가? •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가?

구분	평가항목	KEYWORD	주요 평가질문
	공존공감 역량	협업능력	• 공동과제나 단체활동의 경험 및 구성원들과의 협업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 단체활동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구성원들과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리더십	•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노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공동체 정신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정의로운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행동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가 있는가? • 학교폭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는가?
		의사소통 능력	•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전달하는가? •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발전 가능성 (30%)	성실성/ 성장 잠재력	성실성 및 책임감	•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가? • 주요교과 이외 과목의 성취도는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는가? •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책임감과 지속적 노력, 태도, 꾸준함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자기 주도성	• 관심분야나 진로 탐색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성취한 경험이 있는가? • 학교생활 중 목표를 위해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성취한 경험이 있는가? • 주어진 교육환경 안에서 학교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 또는 열악한 학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는가?
		성장 잠재력	• 본교의 해당 모집단위에 입학하여 충분히 수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본교 인재상인 'THE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는가?

Q1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된 이유와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류은서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평소에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 학교에서 열리는 여러 대회, 행사, 발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동아리를 개설하고 부장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내 활동 기록들을 기반으로 탄탄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인상 깊게 보셨던 선생님들께서 대학 진학 상담 중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주셨기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연우 | 수학과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수학'이라는 진로 방향이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걸 누군가 알 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알아주는 대상이 내가 다니고 싶은 대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학생부에 수학에 대한 열정을 뽐내서 당당하게 대학에 붙자는 마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다정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학교에서는 원하는 등급을 아쉽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으로 1학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마음 속에 새겼고, 앞으로의 학업 및 진로 활동으로 나만의 극복 서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전반을 조망하여 평가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화여대 입학 전략으로 '미래인재전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안현정 | 물리학과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행사 기획부터 탐구 활동까지 폭 넓게 활동을 해왔고 이런 활동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에만 시간을 쓰는 것은 제게 따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따로 조사,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에 쌓이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소정 | 통계학과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꿈꾸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며 수없이 넓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라는 사람을 무한히 성장시키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며 책임감을 배우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흥미와 관심을 알아가고,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 이외에 학교에서 '나'라는 사람의 역량을 끊임없이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효원 |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고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생명과 기계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학년 때는 이 두가지가 서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생명과 기계의 어우러짐에 대해서 탐구하였고 생체의공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 공학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였고, 이화여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박혜인 | 행정학과

1학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형들을 찾아보다가 제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미래인재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저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2

박해인 | 행정학과

자기주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과 각종 활동들을 할 때 그저 학생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 제 진로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관심 있는 활동들을 스스로 찾아서 참여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였더니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활동들을 통해 새로 배워가는 점들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이수빈 | 문헌정보학과

“융합적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자!”였습니다. 자신 없는 과목도 수업 시간에 경청하며 성적 상승과 더불어 좋은 평가도 받았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행사에는 문·이과 과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했습니다. 또한 문과 과목에서도 코딩을 통해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정보적 소양’을 높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독후감이나 보고서 작성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심화 활동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한 자세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류은서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진로에 얽매이지 않고 각 주제를 깊게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목별 활동을 할 때 자신의 희망 진로와 연관성을 찾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탐구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는 너무 진로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되도록 과목에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해결 방법이나 결론을 진로와 연관 지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안현정 | 물리학과

학습 후 생길 수 있는 작은 호기심을 증폭시켜 이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탐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물리 I 에서 역학에 대해 배운 후 개념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동물인 치타는 역학적으로 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걸까? 역학적으로 유리한 치타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여 인간도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이동 수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의문으로 생각을 확대할 때 ‘탐구다운 탐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다령 | 사이버보안학과

면접이 없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의 이야기를 서류로 풀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활동의 발단과 결말이 연결되어 나무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어떤 활동이든 직접 실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직접 해보고 느껴보아야 다음 궁금증을 발견하고 활동으로 나아가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 인공지능학과

학생부에서 ‘나’라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으면서도, 지원하는 계열/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탐구 활동이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좁고 구체적인, 키워드가 분명한 탐구 주제를 정하고, 학년별로 활동이 연계되거나 과목 간의 활동이 융합될 수 있는 주제들로 탐구 활동을 진행했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동아리, 자율 활동 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조현비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저는 모든 활동의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피상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오직 하나의 활동만을 했더라도 뛰어난 수준의 깊은 활동을 진행했다면 그 하나의 활동만으로도 퀄리티 높은 학생부를 만드는 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의문
흥미로운 질문
심도
자기주도성
호기심
연계
탐구다운 탐구
나
다양한활동
융합
주제탐구
결과물

자율 활동

Q3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류은서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학교 이곳저곳에서 활동했던 열정의 흔적이 학생부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동아리 부장, 또래 멘토링, 그 외 교내 다양한 활동(교과 융합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보였던 '적극적인 모습'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활동 나열이 아닌 활동 내용과 느낀 점, 이어서 탐구한 점이나 관련 독서 기록 등이 함께 나와있어 더욱 다채로운 학생부가 된 것 같습니다.

안현정 | 물리학과

첫 번째로는 '나만이 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자'라는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는 등 색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활동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과목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활동을 여러 차례 참여하였고, 발표 후에도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허지현 |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학생부에 작성된 주제들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수학 시간에 했던 '빌딩풍과 관련된 수식'을 유도 했던 것을 확장해 3학년 동아리 시간에 빌딩풍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2학년 때 발표한 해저도시 계획안을 3학년 물리학 II 시간에 우주도시 계획안으로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주제도 연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소정 | 통계학과

제 학생부에는 '성실성', '나의 진로 이야기', '연계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과 선생님들의 긍정적 평가가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탐구 경험을 통해 저만의 진로 이야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녹여나갔습니다. 또한 하나의 탐구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교과에서 넓은 시선으로 탐구해 보며, 단편적인 탐구를 넘어 '입체적인' 탐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모든 고등학교 활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과라고 해서 과학 분야 대회, 활동에만 참여하지 않고 사회계열에서 주최하는 활동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는 모두 사람 사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과학자는 윤리 개념을 제대로 익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 필요한 지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최연우 | 수학과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바탕으로 '수학'이라는 하나의 분야로 관심이 집중된 학생부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저는 확고한 진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탐구하고, 학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학생부에 그런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의 탐구 활동이 또 다른 탐구 활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이 하나의 탐구 활동이 되었고 이 활동이 또 다른 궁금증을 만들어 활동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심화 영역까지 도달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5

교과목 (일반, 진로)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나요?

박한슬 | 특수교육과

진로, 교과목 위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저의 흥미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하되,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교는 문이과 구분을 완전히 없애 어떤 과목이든 수강할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문과생이었던 제가 생명과학 I 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탐구 과목은 수능 선택과목을 대신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국어도 흥미가 있어 다문화시대의 교육에 대비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두 과목 모두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소정 | 통계학과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떤 과목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했습니다. 통계학과는 수학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학과였으므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수학과제탐구 모두 선택하여 이수하였습니다. 공부할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으나, 이러한 저의 선택이 이화여대에 올 수 있었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윤정 | 물리학과

다양한 선택지 중에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과학중점반을 들어간 이유도 앞으로 험난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학년때는 물 II, 화 II, 생 II, 지 II, 정보과학 중 4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쉬운 길은 세 과목을 물, 화, 생, 지 중에서 고르고 하나는 정보과학을 하는 것이었는데, 유독 지구과학을 어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배웠던 것에 더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허지현 |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과 이수체계표를 보면서 교과목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선택의 경우 대학 기초 과목과 연결될 수 있는 과목들이 많기에, 대학교의 1학년 교육과정을 보면서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일반물리학 I 과 미분적분학을 수강하도록 되어있다면, 선택과목으로 물리학, 미적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진로 선택의 경우 2~4학년 전공 선택 과목과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서 선택했습니다.

김여진 | 과학교육과

희망 전공인 교사로서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3학년 때 교육학 과목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교양으로 해당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우선시 했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회과목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은 덜 보일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 과목들을 선택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박혜린 | 컴퓨터공학과

희망하는 학과를 검색해서 1학년 때 무엇을 배우는 지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과목들이 있을 때는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저와 같은 진로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가 같이 의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권장 과목들도 참고해서 선택했습니다.

이수빈 | 문헌정보학과

흥미도와 전공과의 관련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교과목 선택 과정에서는 인원수가 적더라도, 제가 필요로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들의 결과만 보고 '정보' 과목 선택을 망설인 경험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헌정보학과 성격과 가장 비슷한 과목이었을 뿐 아니라 제 성향과도 잘 맞아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진로 변경 가능성 때문에 물Ⅰ·Ⅱ, 화Ⅰ·Ⅱ, 생Ⅰ·Ⅱ를 모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물리가 필요하지 않던 진로를 꿈꾸던 제가 현재 물리학과에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과학 교과를 수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진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이 수강한다고 해서, 혹은 다른 과목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도피용으로 과목을 선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Ⅱ, 화Ⅱ, 생Ⅱ를 수강 신청했을 때 의견을 여쭙었던 선생님 다섯 분 모두 너무 힘들 것이니 하나는 포기하라고 하셨었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3개 모두 수강하였고 내신, 수능 모두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화여대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는 과목을 고르고자했습니다. 과정에서 이보다 인원은 적었지만 문과 과목(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을 선택했습니다. 흥미가 있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공부를 할 때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과목 수강 인원은 그다음 기준으로 세우고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관심있는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려고 했습니다.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재밌어보이는 과목도 수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밌지 않으면 흥미를 가질 수 없었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 위해 흥미로워보이는 교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는데, 이때 전공과 교과목 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여도 해당 분야를 공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학문인 경우 해당교목은 수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 교과목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탐구 주제가 있는지, 전공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은지도 고려하였습니다. 때문에 듣고자 한 교과목의 수강 인원수가 적어도 교과목을 바꾸지 않고 소신껏 수강했던 게 기억납니다.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고, 어떤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데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과목에 흥미가 없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성적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을 배우는데 통합 사회 시간에 유독 법, 정치 파트가 지루했고 공자, 맹자가 나오는 윤리 파트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성향을 파악한 후 관심사를 바탕으로 교과목을 선택했고 수업 내용 자체에 흥미가 있다보니 공부하기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훗날 치를 수능 선택 과목도 고려하며 교과목을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한 점은 제 흥미도와 진로와의 관련성이었습니다. 특히 교과목 선택 과정에서는 인원수가 적더라도, 제가 필요로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선배들의 결과만 보고 '정보' 과목 선택을 망설인 경험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헌정보학과의 성격과 가장 비슷한 과목이었을 뿐 아니라 제 성향과도 잘 맞아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Q6

꼭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조현비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어떤 주제든 멘토로서 '멘토링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합니다. 가령 실력이 부족한 주제더라도 내가 습득한 내용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빈틈없는 학습이 요구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학습 방식이 생기고 멘토지만 오히려 스스로가 훨씬 발전하게 되는 성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혜인 | 행정학과

'대학교 투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로 활동으로 대학교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대학교를 방문해보았는데,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을 보고 공부 의지가 생겼었습니다. 꿈꾸던 대학교를 실제로 보고,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확실히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투어 프로그램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대학교의 투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안현정 | 물리학과

'본인만의 탐구'를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성을 이용한 녹조 제거에 대해 탐구한 적이 있는데 이때 직접 녹조를 분양 받고 실험 환경을 꾸미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변인 통제의 중요성과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의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탐구하는 자세를 명확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다령 | 사이버보안학과

관심있는 '공통교육과정'을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절대평가로 진행되니 성적에 대해서도 많이 스트레스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인공지능수학을 들었는데 인공지능의 기초부터 알아갈 수 있으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혼자 활동을 하며 학습했던 내용은 복기하며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더욱 심화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박한솔 | 특수교육과

'흥미 있는 활동,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힘든 입시 속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대학교에 와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 해야하는 만큼, 고등학교 때 미리 본인의 관심사를 찾고 여러 활동을 도전해 본다면 대학에 와서도 스스로 찾아 활동하는 경험에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여러 활동을 찾아 참여하길 즐기는 친구들의 경우 대학생활을 더 즐겨워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모든 시간을 입시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학창시절에 할 수 있는 여러 경험을 쌓기를 추천드립니다.

박혜린 | 컴퓨터공학과

'창의, 탐구 활동'을 추천합니다. 친구랑 함께 조를 짜서 실험 주제 설정, 설계, 실험, 결과 분석 및 도출, 보고서 작성, 발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실험해볼 수 있어서 의미있었고 설계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웠지만 어려웠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이를 계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 다른 조의 실험과정도 들어볼 수 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추천합니다.

이수빈 | 문헌정보학과

‘학생 주도 봉사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해서 봉사 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던 봉사 활동을 직접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이를 알리는 캠페인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과정은 힘들었지만 캠페인을 준비하며 주변에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나흔 | 사학과

‘책을 읽은 후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어려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해본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친구들이 발표를 듣고 이해했다고 했을 때 뿌듯함이 클 것입니다.

유지우 | 국어국문학과

방송부나 학생회 등 ‘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평소에 소심한 성격이었으나 우연히 방송부에 들어가며 다양한 친구 및 선배들을 만나고 스스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 행사 진행을 위해 선생님들을 직접 설득하고 공간을 섭외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등 평소 해보지 못 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윤정 | 물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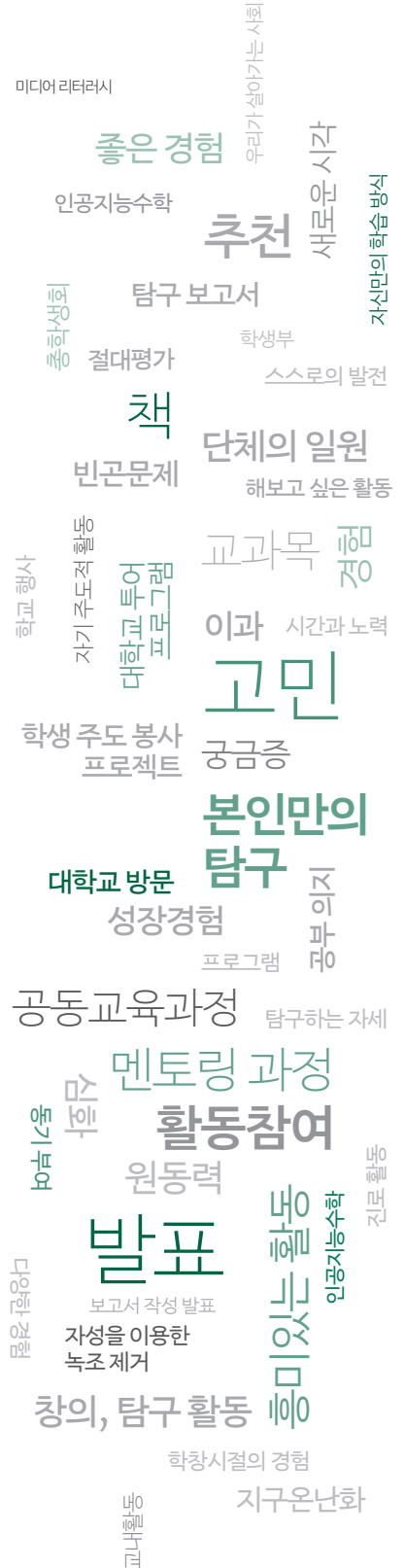
‘토론 대회’는 꼭 참가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과라고해서 과학관련 토론대회를 나가야 되고, 문과라고 해서 사회적인 것과 관련된 토론대회를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문과 학생들 위주의 토론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과학적인 요소가 없어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요소와 과학적인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연결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잘 아는 분야쪽으로 더 많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되었습니다. 토론 준비 과정에서 지식을 확장하며 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효원 |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자기 주도적 활동’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총학생회 및 반 부회장을 맡았었습니다. 총학생회를 하면서 학교를 더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많았고 저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과 더 소통하고 토의하는 경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2, 3학년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리더십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를 소개하고, 관련 실험들을 함께 하려는 시도도 하면서 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김여진 | 과학교육과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전공과 관련되었지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나타내는 2권의 책을 선정 하여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책 한 권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책 한 권을 비교하여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을 넘어서 희망 전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공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여러 주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추천합니다.



최소한의 공부

[illegible]

수능 날 한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 가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컨디션 혹은 문제 스타일에 따라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다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가능한 변수 내에서는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컨디션 같은 경우 수능 한 달 전부터 공부 순서와 시간을 수능과 동일하게 맞췄고 2주 전부터 비슷한 메뉴의 도시락을 써서 먹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수능 당일에는 누구보다 가볍게 문제를 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Q8

수능 고득점을 위한
본인만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나흔 | 사학과

저의 전략은 '반복'이었습니다.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수학과 사회탐구(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 내신처럼 공부했습니다. 내신의 핵심은 반복이었습니다. 수학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최대한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같은 경우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연도에 매진해서 정말 빈출되는 거의 모든 연도 외우기에 매진했고, 시험에 빈출되는 모든 연도를 외웠습니다. 수능 하루 전에는 연도를 다 외웠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 압축해서 복습을 하고 수능을 보러 간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연우 | 수학과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해설지/나의 풀이의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계속 풀면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헛갈리는 부분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념서를 읽으며 개념을 다졌고, 확실하게 개념을 잡았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설지와 본인의 풀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해설지와 다르게 풀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해설지와 비교하며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의 풀이로 모두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강윤정 | 물리학과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 전부터 6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엔 일주일 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도 아니고, 늘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적당히 타이이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해야합니다. 모의고사를 못보더라도 거기서 우울해 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울해 할 틈 없이 내가 틀린 것에 대한 이유와 솔루션을 분석하여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풀어보곤 했습니다.

양다령 | 사이버보안학과

공부할 때는 집과 분리된 학습할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잠자리와 구분되어 있더라도 익숙한 배경, 문지방만 넘으면 밥 먹던 공간, 잠자던 공간 등 방해 요소가 난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아닌 외부 공간이 주는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상황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온전한 휴식 공간으로 인지하여 쉽다 편안해지고 단순 외출 준비가 게으름에서 한 발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박혜린 | 컴퓨터공학과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단순히 외운다고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애매하게 아는 것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즉, 타인에게 설명해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아는 것만 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헛갈리거나 애매하게 알고 있는 점들을 다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서 수능 당일에는 한 페이지 이내로 줄어듭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수능 때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습시다.

이효원 |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꾸준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노력에는 수많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이 점점 성적으로 증명되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감 있는 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고 꾸준히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때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1

학생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합니다. 대학에서는 고교별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현황이 다르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활동을 평가 항목화하거나 점수화하여 평가하지 않고, 지원자가 재학한 고교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편성표 등을 참고하여 개별 학생부 내에서 평가요소별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Q2

지원학과 중심으로 기록된 학생부가 더 유리한가요?

본교는 전공적합성이 아닌 계열적합성을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희망하는 진로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자연·공학 등 단과대학 수준 정도의 계열적합성을 의미 있게 보고 있어, 지원학과나 진로를 특정하여 기록된 학생부가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어진 학교 환경 내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관심 분야의 활동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활동을 통해 본인이 발전시킨 다양한 역량, 또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자격만 충족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예: 미래인재전형-고른기회전형 중복지원 가능).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고른기회전형과 사회기여자전형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등 다른 전형과의 중복지원 역시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전형에서 모집단위만 다르게 중복지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5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였고, 수업시간에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 과정과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의 관심과 학업계획에 따라 도전적으로 수강한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교과등급이나 성취도 이외에도 수강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비율 등 다양한 지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참고하여 학생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업에 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사나 진로계획에 따라 위계에 맞는 과목 선택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단순히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여 등급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나, 기초과목을 듣지 않고 심화과목을 수강하는 등 교과목의 위계에 맞지 않는 수강도 함께 확인하여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4

학년별 반영 비율이 별로 정해져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학년별, 과목별 반영 비율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비교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항목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항목별로 반영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6

자연/인문계열로 지원하는데 수능에서 사회탐구/과학탐구 선택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열 지원 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수학 및 탐구영역 과목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과목을 선택한 학생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인문계열(미래산업약학전공 포함), 국제학부는 국어 영역, 수학 영역(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을 응시하여야 하며,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열은 본교의 모집단위 구분 기준에 따릅니다.

III. 학생부교과전형

01 | 고교추천전형 안내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전형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 1) 202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특수목적고 졸업(예정)자, 특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계고 및 종합고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일반 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출신자, 학생부 교과목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제외
- 2)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있음: 고교별 최대 20명
- 3)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산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4)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됨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방법

반영 교과(군) 및 반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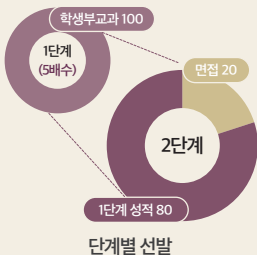
반영교과(군)	반영학기	이수단위 반영방법	교과별 반영방법		교과성적 산출방법
			공통/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 도덕 포함), 과학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학기별 가중치 없음)	전 단위 [공통/일반선택] 80% + [진로선택] 20%	석차등급	성취도	석차등급 및 성취도 점수에 이수단위를 반영

* 공통/일반선택과목 중 석차등급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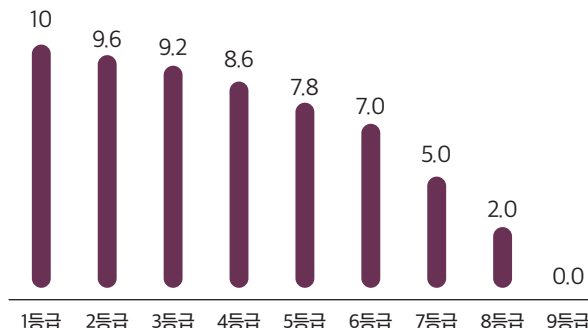
모집인원

41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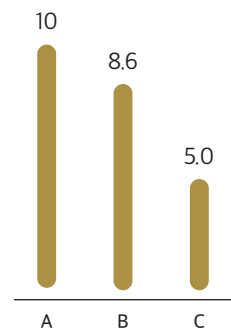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석차등급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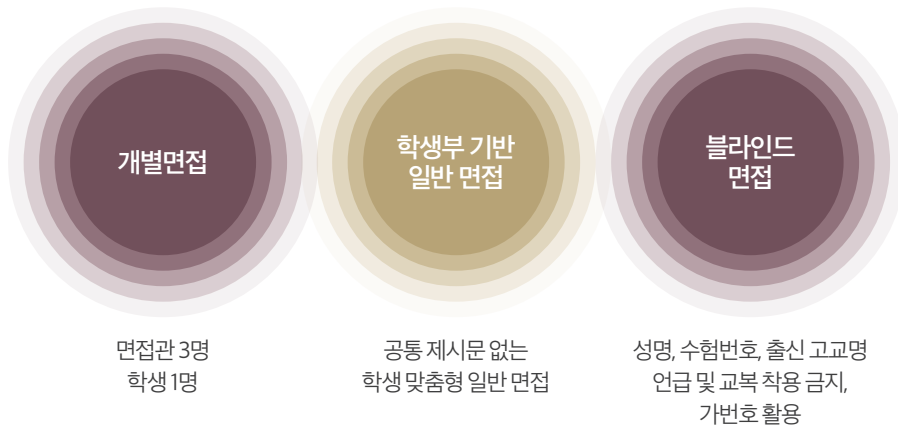


■ 성취도 점수



02 |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안내

고교추천전형 면접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관심분야, 직접 경험한 활동 및 학습과 관련하여 질문하며, 학업준비도, 주도적 탐구역량, 논리적 사고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 평가기준

학업준비도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학업 역량 - 고교 수준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추었는가? -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 현황과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주도적 탐구역량 주도적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의지와 노력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려는 태도가 보이는가? - 학교 활동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의지와 노력이 보이는가?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는가? -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전달하는가?	발전가능성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 본교의 해당 모집단위에 입학하여 충분히 수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본교 인재상인 'THE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는가?

공지사항

관리

수행평가점수

중요성

출제스타일

우선순위

내신80% 면접20%

전공

적극적인태도

면접

자신감

노트킬리

포아포아

내신등급

해결책 제안

시험

피드백

배운점

지원

생각

내신

미리미리 준비해두기

가이로수행능력

더인

필립

단기

학생 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신 성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수험평가 같은 경우 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점이 될 만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해보고 했습니다. 내신 시험의 경우 각 과목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필기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또한,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 출제경향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Q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소원 | 사회과교육과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학 입시 상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화여대 부스에 가서 입학사정관님께 입시 상담을 받았는데, 작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알려주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입학처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는 모교방문단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학 중인 이대생만이 해줄 수 있는 경험적 조언을 통해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래 | 컴퓨터공학과

고등학교에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했던 면접 준비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시작하자니 막막했는데, 면접 준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었고, 학생부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면접도 여러 번 해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말하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본인의 학교에서 면접 준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상담센터의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저희 지역의 경우,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자마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마감되니 서두르세요!

김영은 | 의류산업학과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진로시간에 했던 진로를 찾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은 많지만 정작 실제로 나에게 딱처왔을 때 해내고 또 지속적으로 해내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테스트 결과가 나의 적성에 맞고 또 내가 관심있어 하는 일에 대해 정리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진로설계에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재유 | 영어영문학부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입시 상담과 모의면접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시 상담을 통해 저에게 유리한 전형과 학과 등을 추천받을 수 있었고, 이후 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수시 원서 접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은 영상 촬영을 통해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습관 등을 파악하고 이를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뿐더러, 면접관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돌발 질문들에 답하는 연습을 통해 순발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박수진 | 특수교육과

입시상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얻고 싶었기에 3학년 선생님, 진로선생님, 교과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가 상담을 부탁드렸습니다. 지망학과가 다양했으나 오히려 상담을 받으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과 면접평가를 동시에 하기에 전문적인 조언이 매우 중요했는데, 여러 상담을 통해 학생부 교과전형이나에게 적합한 전형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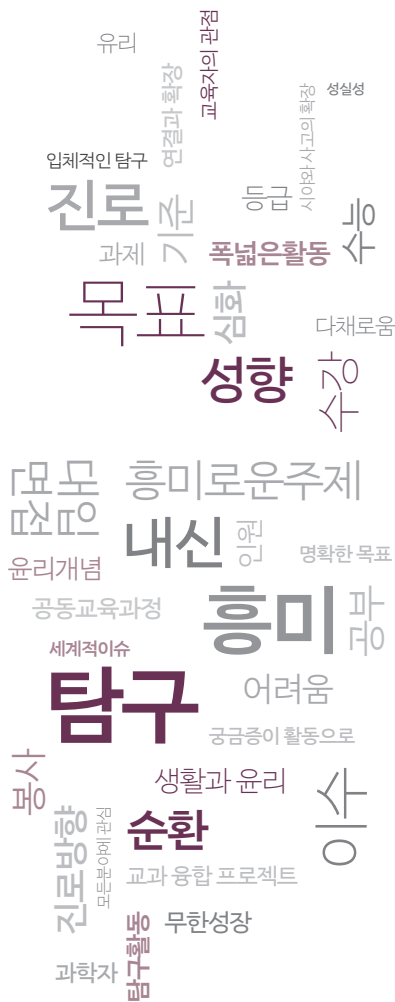
진채현 | 과학교육과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의면접을 통해 충분히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의 빠르기, 손의 위치, 표정, 발음 등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목 선생님께 학문적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내용을 보충했고, 면접 선생님과 연습하며 모르는 사람과 긍정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Q3

본인의 선택과목 (일반, 진로)은 무엇이었고, 어떠한 기준을 따라 선택했나요?



이소원 | 사회과교육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부하며 지리와 일반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문화와 한국지리를 선택했고, 생명 분야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다는 생각에 흥미를 갖게되어 생명과학 I 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과목인 사회 과제 연구의 경우에는 직접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논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자로서 지리 교육에 대해 연구할 때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또한 지리 분야 중에서도 세계적 이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지리 교육 중에서도 세계적 이슈와 일상생활에서의 지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이와 비슷하게 일반 과목에서는 세계 지리, 정치와 법을, 진로 과목에서는 여행지리를 수강했습니다.

진재현 | 과학교육과

화학, 생명, 지구과학과 한문을 선택했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제도를 활용하여 심리학과 교육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과목을 선택할 때 '꿈꾸고 있는 진로를 구체화 시키고 진로에 관한 시야와 사고를 넓힐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첫번째로 두고 선택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과학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기 때문에 사회탐구보다는 과학탐구를 선택하였고, 지금까지는 학생의 입장에서만 학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교육자의 관점에서 생활지도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 심리학과 교육학을 선택하여 공부했습니다. 한문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더라도 핵심 용어들이 한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배우는 내용을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은 | 의류산업학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의류학과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만큼 화학과목을 어느 정도 배우고 가면 소재나 섬유 등의 과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화학 I 을 선택했습니다. 이과인 친구들 사이에서 물론 배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학생부의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한 대입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열심히 학업에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이과 상관 없이 진로와 어울린다 생각하는 과목을 1개 정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3학년 때 내신 및 수능 선택과목으로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선택 하였으며, 이 두 과목이 수능과목과 같아 공부시간을 배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수빈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물리, 화학, 생명, 생활과 윤리, 미적분, 기하, 심화수학, 물리II, 물리학 실험, 화학II 등 이공계라면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환경에 관심이 있었기에 1학년 공동교육과정으로 생태와 환경이라는 진로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이후 과목 선택에 있어 생명과학과 화학이 저의 관심사와 가장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되어 선택했고, 물리의 경우 어렵고 선택지도 적지만 공학도를 꿈꾸면 당연히 들어야한다는 확신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이유는 과학자로서의 윤리가 대두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물리와 화학이 재밌었고 흥미에 이끌려 해당과목들을 듣다보니 '에너지'라는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더 배워보고 싶고 흥미가 가는 과목들 위주로 선택했고, 원하는 것을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제 길은 에너지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루리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일반 교과목으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세계사, 동아시아시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택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심화 국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를 총망라하는 '미디어'중에서도 언론 분야를 희망했기에 학생부에 작문에 대한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심화 국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윤리 과목의 경우 직업윤리 혹은 작업장 내 직면하는 윤리 문제를 다루기에 좋은 교과목이라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고 일반 사회 과목은 개인적인 흥미와 동시에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4

본인이 선호했던 /
어려웠던 교과목은
무엇이고,
각각 어떻게
공부하였나요?

최수빈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거의 모든 탐구 과목에 열정을 느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문은 일상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탐구 과목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공식이 만들어지고, 이 공식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즐겨, 혼자 수학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합해 공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과 윤리 과목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논리는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르며, 그들의 사상 뿌리에는 그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학파와 가치관을 그림으로 정리하면서, '아, 이러한 사상 때문에 이 이론이 생겼구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생명과학과 영어 과목은 어려웠습니다. 두 과목 모두 암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학의 경우는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도 다시 읽으며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재유 | 영어영문학부

제가 좋아한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내신을 준비할 때, 선생님께서 주로 출제하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교무실에 있는 전년도와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먼저 풀어보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지 숙지했습니다. 제 경우, 시험 범위에 포함된 모든 영문 지문을 한국어로 암기하여, 문장이 변형되어도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제가 가장 힘들어한 과목이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학에 강점이 있는 친구와 하브루타식 스터디를 조직하여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박수진 | 특수교육과

지리와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지리의 경우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모두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독서(비문학) 또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문 속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해하고, 지문 속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영어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단어 암기였습니다. 매일 영단어를 암기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기에, 저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뜻을 유추한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지문에서의 모르는 단어는 꼭 외운다였습니다. 포스트잇에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적어두고 시선이 자주 닿는 곳에 붙여두니 눈에 익었고, 이런 작은 습관이 영어 단어가 머리에 남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채현 | 과학교육과

선호했던 과목은 지구과학이고 힘들었던 교과목은 영어였습니다. 먼저 지구과학의 경우, 학교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PPT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 교과서에 저만의 방식으로 내용을 재구조화시켜 노트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이후 기출문제집을 2~3권정도 선정하여 문제풀이를 진행했고 모든 문제의 모든 선지에 근거를 달며 오개념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의 경우, 단계별로 시험범위의 본문을 체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단계의 예시는 어휘숙지, 잘못된 문법 바로잡기, 문장배열, 문단 배열, 요약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단계가 하나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암기
개념이해
추리
집중
노력
사상
수능
이해
공부
영어
반복
키워드
지문
단어장
방법
포스트잇
내 의자의 배치
개념
내신 성적
정리
다양한분야
이해
시험범위
흐름
어휘숙지
영단어암기
문제풀이
오개념
문단 배열
문장배열
요약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5

면접평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이소원 | 사회과교육과

“연습은 실천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는 면접 준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매주 모의면접을 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모의면접을 촬영 후, 반드시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접 중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실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의면접 전에 학생부를 학년별로 나누어 철저히 분석하고, '질의응답 모음집'을 정리했습니다. 모의면접 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통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음 면접에서는 개선점을 적용해 나갔고, 이 과정 덕분에 약 3주 만에 실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면접장에 들어설 때에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예상했던 질문에 대해 연습했던 대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강주혜 | 통계학과

이화여대 면접을 지원 대학 중 첫 순서로 치르게 되어 준비 방법에 대한 막연함이 컸습니다.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고교추천전형의 면접 유형을 파악하여 학생부 기반의 질문들을 최대한 도출해내려 노력했습니다. 지원동기를 포함한 100개가 넘는 예상질문들을 준비하여 완전히 익혔습니다. 저는 자신의 강점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고, 면접관의 추가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전달하는 과정이며,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여 수없이 많은 모의면접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질문들 이외에도 선생님들께 돌발 질문을 부탁드렸고, 이러한 실전 같은 연습이 면접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수빈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면접에 자신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면접수기를 분석하였습니다. 모든 면접 내용을 확인하며 질문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질문(동기, 끝인사, 약한과목 질문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우선 이러한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며 나만의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또, 교과면접이지만 학생부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기에 학생부 분석도 필수입니다. 이화여대는 면접 시간이 짧아 많은 부분을 묻기보다는 하나를 물어보고, 그 답변에 대한 꼬리질문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차로 관련 교과목을 선정하고 해당 세트를 읽어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김명희 | 사회학과

저는 제 학생부를 보며 키워드나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예상 답변과 배경지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상질문과 답변을 외우는 것보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도 따로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더욱 '나'라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적은 예상 답안들에 부족한 부분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 서적을 참고하기도 했고 교과목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재유 | 영어영문학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의 선생님께 모의면접을 부탁드렸습니다. 특정 학문 관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예상 질문을 받아 이에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Q7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면접에
응시한다면
수정하고 싶은
답변이 있나요?

이제
연구
대답
수정
면접
열정
설명
기억
주도
활동
본인의
장단점
중점적
내부
면접
열정
주도성
미래설계
개념
분석
의도
답변
자신감
학생회
당황하지 않기
예시

진채현 | 과학교육과

동아리시간에 진행했던 모의수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2학년 때 작은 선생님이라는 동아리에서 직접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해보았는데, 이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학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활동인지라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고충과 뿌듯했던 점을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이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할 때 그림책을 활용했는데 그림책을 교육에 활용했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에 남아, 다시 답변한다면 배운 점을 말할 때 그림책의 장점을 함께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아린 | 화학생명분자과학부

“본인의 장단점을 화학생명분자과학부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세요”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답변은 미리 준비했었지만 이 답변을 학과와 연결지를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 때 과학동아리 부장을 하며 쌓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장점이라고 말하며 화학 분야와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때 이 장점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리 대처할 내용을 생각해놓고 이를 실험과정과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이소원 | 사회과교육과

학교 활동 중 지리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꼬리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 활동 중 지리와 관련된 활동에서 교육동아리 시간에 했던 ‘2015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교과와 2022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 교과를 비교했던 활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보통 고등학생이 교육과정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잘 다루지않는데, 이유가 있나요?”라고 꼬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세계지리 시간에 단원구성에 대해 비판적 탐구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한 저의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한 활동 중 다른 시간에 한 활동이어서, ‘나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한 것을 더욱 심화 연구해봤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진 | 특수교육과

“2학년 영어 시간에 특수교육과 장애이해교육에 대해 탐구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 왜 본인이 우리학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부분까지만 들었을 때는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겠거니 하면서 활동을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탐구내용을 토대로 왜 본인이 우리학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물어보셔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을 들 때는 면접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하면서도, 독특한 구성의 질문이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전반적인 태도와 답변의 질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시 면접에 응시한다면 두괄식으로 주장을 말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덧붙이며 답변하고 싶습니다.

신우림 | 경영학부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원래 답변으로 연습했던 활동을 다른 질문에서 언급해 또다른 활동으로 답변했는데, 말하면서 당황한 티가 났던 것과 답변을 길게하려고 같은 키워드를 반복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시 답변한다면 조금 짧더라도 그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과 느낀점만을 간략하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래 | 컴퓨터공학과

마지막 질문이었던 “주도하는 인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하고 싶은지, 취업을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창업을 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고 싶습니다. 이화의 벗들과 함께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 당황하여 마지막 문장을 좀 얼버무린 것 같습니다.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면 “창업을 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화는 저처럼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온다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저의 주도적인 모습과 이화여대에 대한 간절함을 더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최수빈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발전현황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달라 하셨기에 제 분석의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주제와 소주제, 조사내용과 기획을 답변하니, 면접관께서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너지 시장과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갖고있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발전방식에 비해 아직 기술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다는 점 때문인지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가 선진국 위주로 작성되어있었는데, 기후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한정적이라 느껴져 아쉬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면접관께서는 결과에 대한 분석을 원하신 것 같았는데, 다른 생각을 밝혔다고 생각하여 면접 이후 후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솔직한 생각이었고, 뻔할 수 있는 답변을 다른 시각에서 풀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리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첫 질문으로 지원 동기가 아닌 가장 듣고 싶은 수업 3개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신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 수기를 찾아보았을 때, 보통 첫 질문으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시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지원 동기가 아닌 듣고 싶은 수업을 3개나 말해보라고 하셔서 듣자마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타 질문 답변으로 준비했던 듣고 싶은 과목들을 기억하여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은 | 의류산업학과

“10년, 20년 뒤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우리 학교에서 졸업 후 미래설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과 “비교과 활동 중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여서 해낸 일이나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질문 답변에 원하시는 대답을 못 들었다며 잘 대답해 달라는 답을 받았기에 최대한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당장 기억나는 것이 없어 수확골든벨 시간에 친구들과의 단합을 이끌어 나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학과와 먼 이야기를 답해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이 답변을 가장 수정하고 싶습니다.

한재유 | 영어영문학부

“만세전과 무정을 시대적 배경, 작가 등 외부 요인을 통해 비교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답변 후 “그런데 만세전과 무정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의 태도도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꼬리질문을 하셨습니다. 면접관님의 표정이 날카로웠을 뿐 아니라, 저의 답변에서 빈틈을 날카롭게 지적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이에 첫 번째 답변에서 잘못 말한 점을 수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면접에 응시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해당 문학 작품의 발행 연도를 먼저 설명하고, 해당 시대에 따른 문학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서지우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주로 그룹 내에서 이끄는 편인가요, 따르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을 강조하여 답변을 준비해왔고, 이끄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시를 얘기하려니 학생회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기억 안나고, 머리 속이 복잡해져 말을 더듬었고 면접관님께서 답변을 끊으셨습니다. 그 후 면접관이셨던 담당 교수님 두 분과 다시 뵈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황한 저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수님께서 어떤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잘 뒷받침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허무하게 두 번째 기회도 날려버렸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잘 참고하셔서 후회없는 면접 보시길 바랍니다!

김명희 | 사회학과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아까 역사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조선시대와 사회학의 상관관계가 뭐라고 생각해요?”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고 그 전의 답변에서 이어져 온 꼬리질문이라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2 한국사회의 이해 시간에 썼던 열녀문과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보고서를 떠올려 이에 기반해 답변했습니다. 사실 당황스럽기도 했고 즉석에서 답변을 말해야 하다보니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부족했지만 열심히 답변하려 노력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FAQ

Q1

재수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교과 산출방법은 3학년 1학기까지 주요교과 전 과목, 전 단위 반영(가중치 없음)합니다.

Q2

고교별로 몇 명까지 추천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고교별 추천인원에 계열별 또는 졸업여부에 따른 인원 제한이 있나요?

2025학년도부터 고교별 최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고교별 추천인원 내에서 계열별 또는 졸업여부(재학생/졸업생) 등에 따른 인원 제한은 없으나, 출신 학교의 추천을 받은 후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학생부종합전형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본교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출신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3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진로선택과목은 어떻게 산출/반영되나요?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학기별 가중치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군)의 전 단위를 반영합니다. 공통/일반선택교과 80%와 진로선택교과 20%가 반영되며, 공통/일반선택과목 중 석차등급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비율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로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10%에서 20%로 조정된 이유는 고교교육 현장에서 성취도로 표기되는 진로선택과목의 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교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Q6

고교추천전형에서 면접 점수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단계(면접평가) 순위로 1단계(학생부교과) 순위를 역전할 수 있나요?

면접 반영 비율은 20%이나,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의 특징인 지원자들의 촘촘한 교과 성적 분포로 인해 합격자 선발에서 면접은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결과에 따라 교과 성적 순위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최종 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접에서 본인의 우수성을 드러낸 학생들은 충분히 순위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Q7

모집인원의 5배수가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5배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단계에서 지원자의 교과점수를 기준으로 각 모집단위의 모집인원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1일 최대 면접 가능 인원을 고려하되, 보다 내실있는 면접전형 운영을 위해 5배수까지의 학생들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합니다.

Q8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전공 관련 이론이나 지식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질문하나요?

고교추천전형의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일반 면접입니다. 어려운 전공 관련 지식이 아닌, 당사자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관심 분야, 직접 경험한 활동 및 학습과 관련하여 질문하며, 학업준비도, 주도적 탐구역량, 논리적 사고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생부를 꼼꼼히 읽어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면접은 총 몇 분 동안 진행되고 몇 개의 질문으로 구성될까요?

면접은 약 5분간 진행되며, 지원자는 본인의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꼬리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학생마다 받게 되는 질문의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더라도 본인의 우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면접 시간(순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공정한 면접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수험생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등의 언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가번호를 활용하여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 순서를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이화로운 대학생활

01 유연한 전공설계

이화여자대학교는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는 복수전공과 부전공 제도,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등을 통해서 하나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외에도 2개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등이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

소속한 전공(학과)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 과정을 이수

제1전공의 학위증에 복수전공(학과)의 학위를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



부전공

소속한 전공(학과) 이외의 전공(학과)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

제1전공의 학위증에 부전공(학과) 이수 내역을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

연계전공

모집단위 설치전공(학과)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전공(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인문과학대학 동아시아학, 미술사학, 일본언어문화	사회과학대학 북한학, 아동학, 여성학, 인지과학, 재무경제	자연과학대학 계산과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정보보호학, 과학기술경영
사범대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도덕·윤리교육, 멀티미디어학	경영대학 기업가정신	의과대학 컴퓨터의학
인공지능대학 소프트웨어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리더십과정의

융합전공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타 학문간의 융합전공으로서, 2학년 이상인 모든 재학생들이 부·복수 전공으로 이수 신청할 수 있음.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인문경영', '인문예술미디어', '인문테크놀로지'	 공과대학에서 프라임사업(PRIME)으로 개발한 '바이오신소재공학'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의 전공특화형 X++sw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으로 개발된 '전공특화소프트웨어'
---	--	--

중학생 때부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과학계열의 학과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다가 행정학은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각종 사회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학문이다'이라는 설명을 읽고 저의 지적 호기심과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학을 배우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행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미디어 관련 전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학교 홍보 영상 제작, 졸업 영상 제작, 각종 동아리 홍보 영상 제작, UCC 대회, 선생님들 결혼 축하 영상 제작을 하며 제 적성과 흥미를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학과가 저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여러 영상 제작 활동을 하고 과제 결과물을 영상물로 제출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제가 선택한 학과가 잘 어울린다고 해주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인 '기후 위기'를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후 및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 연구자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경제, 통계, 컴퓨터 등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활발한 분야라는 사실 또한 매력적이어서 다양한 학문으로의 연계 학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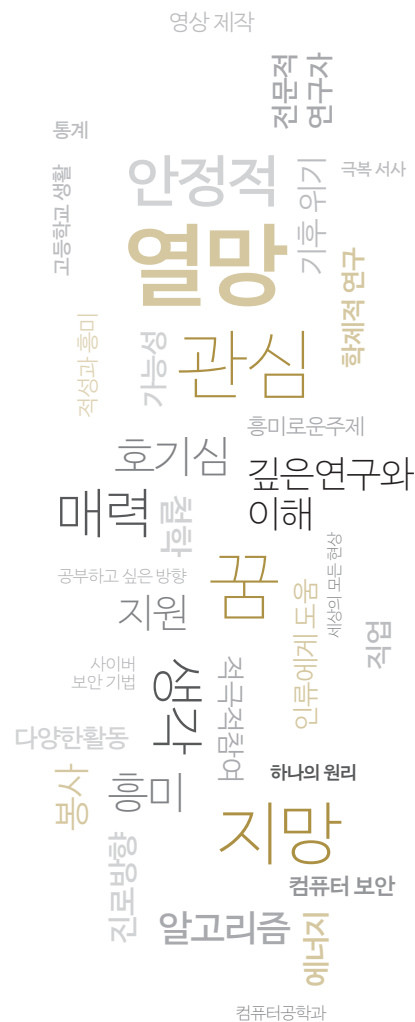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국어를 처음으로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학에 대한 큰 애정이 생겼고 우리나라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어교육과도 생각했으나,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교육보다도 문학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였다는 것을 깨닫고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생명공학과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물리 I 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다보니 물리에는 세상을 설명하는 철학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물리에 흥미가 생겨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식, 하나의 원리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자와 컴퓨터공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코딩을 배우고 직접 코드를 짜거나 해석하는 일, 컴퓨팅 사고력 문제를 풀면서 기르는 일이 재밌었고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라 오류를 직접 타파했을 때 더욱 강한 뿌듯함과 습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RSA알고리즘, 암호화, 복호화를 알게 되었는데 소수와 소인수분해만으로 암호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이 신기했습니다. 당시 이슈가 되었던 랜섬웨어를 통해서 컴퓨터 보안에도 관심이 생겼으며 최종적으로 사이버 보안 기법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학과는 사회현상을 새롭게, 거꾸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의 확장을 하고 싶어 사회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전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시선 속에서 바라보며 현대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중인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가장 기대되는
수업은
무엇인가요?

조현비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이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의 기초가 된다는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과목을 고등학생 시절부터 기대했었고 수강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수업들이 계속 기대됩니다. 또 관련 직종에 직접 종사하셨거나 현재에도 종사하시는 학과 교수님들의 전공 실습 수업들도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또 굉장한 경력을 지니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서 강의 해주시는 교양 과목들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박혜인 | 행정학과

행정학과 전공 수업들이 기대됩니다. 현재 1학년 전공 수업으로 '행정학의 이해'를 수강하고 있는데, 행정의 정의와 행정학의 역사, 행정학이 추구하는 가치 등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수록 행정학과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듣게 될 전공 수업들도 기대가 됩니다. 전공 수업들을 성실히 들어서 진정한 행정학도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수빈 | 문헌정보학과

1학년 1학기에 가장 기대되는 수업은 '현대사회의 기록과 정보'입니다. 아직 많은 수업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 대해 배운다는 점이 재미있었고 고등학교 때 문헌정보학과를 꿈꿔오며 상상했던 수업과 비슷했습니다. 첫 수업 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고학년이 되면 듣게 될 '도서관 실습' 수업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은서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1학기 전공 선택 강의 중 '미디어 글쓰기와 스피치'가 가장 기대됩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정확한 방법과 전략을 제대로 배울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니 글을 쓸 일이 정말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또한 스피치 측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수강하여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나흔 | 사학과

'중국사' 수업입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한국사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중국사에 큰 관심과 흥미가 생겼습니다. 대륙이 크고 인구도 많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중국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최연우 | 수학과

교양 수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처럼 다양한 분야들을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수많은 분야의 교양 과목들이 있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수학 외에 관심 있었던 것들을 들을 수 있어 가장 기대됩니다. 교양 수업 외에도 전공 관련 수업도 기대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심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내용들이 많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유다래 | 컴퓨터공학과

교양 과목 중 '여성학'이라는 수업이 가장 기대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은 오티 이후 첫 수업을 들었던 날인데, 여성학 수업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종류의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3

이번 학기 계획은
무엇인가요?

류은서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고등학생 시절 술 가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준비했던 만큼 그 리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수시 장학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학기 성적을 잘 받는다면 2학기 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꼭 해내고 싶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화여대 입학처 공식 홍보대사인 이화로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화로사에서 수험생 시절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조현비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길을 펼쳤다면 이제 이 전공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저의 길을 천천히 찾기 위해 기초 전공 수업 및 교양 수업을 듣고 다양한 세상을 접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24년 1학기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주로 연관되는 핵심 교양들로 시간표를 구성했고, 현재의 계획은 잘 짜여진 현 시간표에서 단 한 과목도 빠짐없이 모두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강해 저만의 인생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혜인 | 행정학과

‘해보고 싶은 건 다 도전해보자!’입니다.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들은 일단 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교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싶어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시로 들어가서 행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좋은 경험을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이수빈 | 문헌정보학과

학업과 동아리 활동 모두!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4년 2학기에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이에 준하는 성적을 받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 2개의 벽화 봉사 동아리와 코딩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도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즐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과 여가 모두를 놓치지 않는 1학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연우 | 수학과

누구보다 즐겁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교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 과외나 알바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이자 저의 큰 바람은 높은 학점을 받는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노력한 만큼 저의 학점에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받고 싶습니다.

이나흔 | 사학과

우선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의 지리를 아직 잘 알지 못해 길을 자주 잃는데 그럴 일이 없도록 학교에 대해 잘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 제가 내향적이고 낯을 많이 가려 친구들을 잘 못 사귀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와 정말 재미있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진채현 | 과학교육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과 소모임 혹은 중앙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가득 쌓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양식들을 보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제 앞에 놓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기초 전공

도전
교양 수업
시간표
성실하게
최선
학기
동아리
수업
후회하지 말자!
벽화 봉사
목표
적응
홍보대사
사랑
경험
평화로운 학교 생활
시작
천천히
다양한 분야
도전
이화로사
즐겁게
무한성장
책임감
희망전공
학교
학점
최선

EWHA Hello!

예비 벗에게 한다디

부디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후회 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많이 도전해 보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내년 봄은
이화에서 맞이할 따뜻한 봄날을 기약하면서,
저는 이화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소원 | 사회과교육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미래의 이대 벼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강주혜 | 통계학과

내가 왜 이 길을 가고자 하는지 명확한 동기와 계기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최유빈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부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전형 면접은 짧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면접 후, 저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들어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를 물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후배님들도 긴장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재유 | 영어영문학부

수험생활을 하며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만화속 주인공들처럼
"주인공에게 시련과 역경은 필수적인 법. 난 고난을 이겨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저 자신을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분의 격려 방법을
하나만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김명희 | 사회학과

학생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입시를 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이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넓게
보고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각자만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후배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재현 | 과학교육과

사람은 누구나 좌절하기 쉬운 것 같아요.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면서 낙담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더 나아가고, 제가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칭찬하는 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도
만들어주고 짧은 행복도 느끼게 해줘요. 길다란 길고 짧다면
짧은 고등학교 생활이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효원 |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지원 계열에 해당하는 기초 교과목 성적은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의 분야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계열,
학문 간의 융합된 탐구 활동들을 추천합니다. 학생부위주전형
안내서의 평가요소를 확인하고 자신의 학생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지원할 때 도움이 되었기에 추천드립니다.
김성주 | 인공지능학과

3년 내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학생부를 놓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나흔 | 사학과

공부하는 시간을 재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초점이 잡혀 "오늘은 몇 시간을 공부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오늘은 이 문제집을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의보다 강의 없이 자습하는 시간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조현비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자신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 전형이 자신에게도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학교생활과 성적을 토대로 신중하게
전형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박해인 | 행정학과

학생부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채워집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면 어느 순간 다채로운 학생부로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류은서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미래의 후배님들에게 성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아온 역량을 이화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우리 모두 이화에서 만나요!
최연우 | 수학과

본인의 길을 가세요. 특히 정보를 위해 동료 수험생과
교류하거나 웹 서핑을 하는 것은 적당한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휘둘리는 것은
수험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안주할 무언가를 찾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수험생활은 내 손으로 끝마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다정 |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 이유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발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후배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며 그 노력을 이화가 알아줄 것입니다.
미래의 후배분들 학교에서 만나요!
안현정 | 물리학과

학생부 작성이 너무 막막하신 분들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의 인재상, 희망 학과의 학과 설명, 전공별 교과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학교 선배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접적으로 선배님의 수험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별바탕으로
나의 수험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다영 | 사이버보안학과

돌아보면 고등학교 생활은 저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그만두고 싶어도,
버터내는 경험이나중에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봄날의 이화여대 교정에서 만나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허지현 |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많은 친구들이 정시를 준비하며 내신과 학교생활에
소홀해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번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었던 것이 저를 좋은 결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박한솔 | 특수교육과

전공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저만의 학생부를 만들어나갔고,
이화여자대학교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여진 | 과학교육과

다양하고 멋진,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

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이소정, 통계학과)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사람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ECC와 같이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학생중만 있다면 벗들과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이효원, 휴먼기계라이오공학과) 전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활동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전공별 트랙, 학과 설명회 등 이화여대에서 구체

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봉사단, 고시지원과 같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서 후회없는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김여진, 과학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열리는데, 학교 홈페이지나 공식 소통창구만 잘 활용한다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최수빈,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교 벗들의 분위기, 소속감 등이 저를 더 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용

기가 이대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이루리,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이화여자대학교는 이화라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이대생들이 스스로를 탐구하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박수진, 특수교육과) 따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서 길을 알려주시는 선배님도 계셨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

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 벗에게 다른 벗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산을 씌워주시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공간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대생으로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진채현, 과학교육과) 학교 곳곳에서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가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

를 실천하고, 나 자신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약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어 좀 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유다래, 컴퓨터공학과) 선배들과 후배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끈끈한 것 같습니다. 과 행사나 동아리 행사 등 여러 다양한 행사 등에서 졸업하신 선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선배들이 전부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신우림, 경영학부)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길 타 대학에 비해 이화여자대학교는 복수전공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언제든지 마음의 변화에 따라 전공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조금이라도 들어보고싶은 과목이 있으면 주저말고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서지우,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모든 분야에 정말

다양한 학생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준다는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든 부담없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학생의 도전과 비전에 적극 지원을 해주는 열의 넘치는 사람들과 시스템이 가득한 이곳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게 정말 과분한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조현비,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중에도 이화다우리, 학과 내 1:1 매칭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선배님과 동기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박혜인, 행정학과)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며칠 전 학교 ECC에서 사물함을 찾아 헤

매던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화의 정’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습니다.(이수빈, 문헌정보학과) “엄마, 나 정말 이화여대에 오기를 잘한 거 같아. 나 우리 학교가 너무 좋아” 이대에 왔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강의들과 너무나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벗들과 한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토의, 토론을 한다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며 서로 성장하는 강의 분위기 뿐 아니라 평소에만나

는 벗들도 정말 착하고 재미있어 요즘 학교 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김명희, 사회학과) 학교 생활의 측면에서 예쁜 캠퍼스, 다양한 편의 시설, 신축 기숙사 등이 낯선 서울에서 생활하는 저에게 편한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최연우, 수학과) ‘나답게 이화답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무대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장다정,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저는 원래 여성인권 및 여성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여자들만 있는 곳이다 보니 캠퍼스 곳곳에서 벗들이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며 이대는 학생들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유지우, 국어국문학과)넓은 캠퍼스와 ECC와 같은 특이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식당, 놀거리가 풍부한 신촌에 위치해 있어서 학교생활이 즐겁습니다. 또한 1학년 우선배정이 되는 기숙사 생활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박혜린, 컴퓨터공학과) 벗들이 너무나 너무 따뜻하고, 건물도 예쁘고 학교도 크고 여러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교수님들도 저희를 정말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좋고, 여러 질 높은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종합대학교이고 학생 수도 정말 많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은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학교 프로그램도 정말 잘 갖추어져 있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벗들과 함께 즐거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선배 벗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대생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박한솔, 특수교육과) 학교잡마도 뒤에 프린팅이 매우 다양해서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입을 수 있고 이화 그린 색이 예뻐서 학잠 입은 나의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든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벗들(동기나 선배분들)을 관찰한 결과 모두 매우 열심히 살고 멋진 꿈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점, 배울 점이 많아서 좋습니다. 다들 다재

다능하고 평균 능력치도 높고 발표도 잘하시는 등 정말 멋진 사람들과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느끼게 해줘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김성주, 인공지능학과) 벌써부터 갓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저까지 좋은 자극을 받고 더욱 성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에서 ‘벗’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대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이소원, 사회과교육과) 커뮤니티에 모르는 점에 대해 질문을 하면 5분 안에 선배님들께서 매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정함은 입학한 후에 이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직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학생회 선배님들은 종종 맛있는 간식을 사주시고, 조금 친해진 언니들은 밤도 자주 사주십니다. 1학년 1학기 첫 수강신청이 정말 많이 떨리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같은 과 선배님들께서 직접 시간표 수정도 해주시고 어떤 교수님들이 좋은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긍정

적인 경쟁 덕분에 훌륭한 이대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강주혜, 통계학과) 학교 안 대부분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으며 갑자기 모임이나 친구를 찾는 경우에도 편하게 처음 만나 이곳저곳 놀러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같습니다. 특히나 좋은 시설의 기숙사에서 살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학과 친구들과 친목을 가지고 친해 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듯합니다.(김영은, 의류산업학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 등 고민거리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는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대생으로서의 좋은 점들이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한재유, 영어영문학부)



admission.ewha.ac.kr

EWHA, THE FUTURE WE CREATE

그대가 바라는 미래, 이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 02-3277-7000 F. 02-364-0208 E. admission@ewha.ac.kr